



유럽경제, 총체적 난국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그리스¹⁾ 재정위기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은 실물 및 체감 경기 부진, 실업률과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.
 -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재정으로 내수 부진, 경기 둔화, 일자리 및 세수 감소 우려가 커짐.

- 2011년 하반기 들어 유로지역의 실물경제 지표들은 악화되고 있으며, 경기체감지수와 경기선행지수들도 악화되고 있음.
 - 8월 유로지역의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0.1% 감소하여 지난 5월(1.9% 감소)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함.
 - 유로통계청은 유로지역의 경기동향 심리지표인 경기체감지수(ESI: Economic Sentiment Indicator)가 10월에 94.8을 기록하여 2009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힘.
 - ESI는 2011년 3월(107.3)부터 10월(94.8)까지 8개월 연속 하락함.
 - Markit Economics는 유로지역의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(PMI)¹⁾가 2011년 10월 47.1로 하락하여 3개월 연속 50 이하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함.
 - 제조업 경기는 생산과 신규 주문, 수출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2009년 5월 이래 가장 급격하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남.
 - 지역별로는 주변국뿐만 아니라 독일 등 성장을 견인해 온 국가들도 10월 들어 제조업 경기가 위축됨.
 - 독일의 제조업 PMI도 10월 들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49.1로 50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,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도 27개월 내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함.

1) PMI(Purchaser Managers' Index)는 유로지역 17개국 3,000여 개 기업 구매 담당 임원들에게 채고, 수출, 구매 동향 등을 설문조사해 지수화한 것임. 지수가 50 이하면 경기 위축을, 50 이상이면 회복을 의미함.

- 유로지역 경제 회복의 선도 업종인 제조업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유로지역의 빠른 경기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.

■ 재정위기에 따른 금융 불안,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유로지역 실업률이 더욱 높아짐.

- 유로통계청은 유로지역 9월 실업률이 10.2%로 전월대비 0.1%p 상승했다고 밝힘.
 - 국가별로는 스페인(22.6%), 그리스(17.6%), 라트비아(16.1%), 아일랜드(14.2%), 슬로바키아(13.5%) 등의 실업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.
- 9월 중 유로지역 내 실업자 수는 1,600만 명이며, 25세 이하의 실업자는 329만 명을 기록하여 청년 실업률이 20.6%로 나타남.
- 공공부채를 줄이기 위해 유로지역 각국이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실업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.

■ 한편,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에 이어 10월에도 3%를 기록하여 유럽중앙은행(ECB)의 억제 목표치(2%)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.

- 연말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.4~2.5%로 하락할 것이라는 EU의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남.
- 민간 전문가들도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.8~2.9%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였음.

(Financial Times, 11/3)